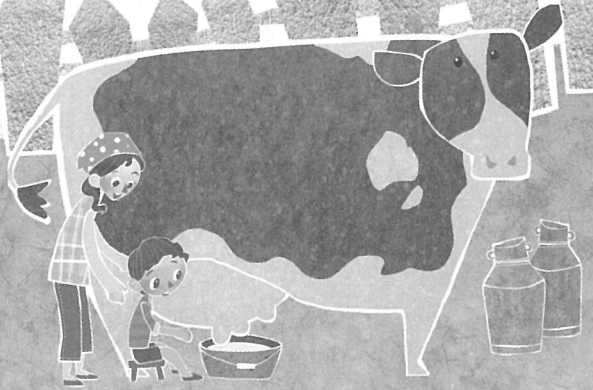


10월 사양관리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조용일, 임동현, 임현주



10월에는 고온스트레스로 인해 여름철에 누적된 문제들을 챙기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양관리를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발정관찰 비율을 높임으로써 집중적으로 번식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양관리

영양수준 조정하고 사료는 2회 이상 나눠서 급이해야

환절기가 되면 외기 환경의 변화에 의해 대사가 불균형해 질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침과 저녁에는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갑작스런 기온저하가 있을 수 있는 야간에는 송아지방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따뜻한 낮 동안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고 항상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옥수수사일리지를 담아두었던 농가에서는 배출면을 수직이 되게 해서 공기가 사일리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개봉 후에는 비닐로 잘 덮어 두어야 부패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월동용 조사료인 벣짚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하되, 비를 맞으면 기호성과 영양분이 크게 떨어

어지므로 비를 맞히지 말고 잘 말려 신속히 수거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기온이 점차 선선해지는 이때,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 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계절이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가을이 되면서 섭취량이 점차 증가할 때 영양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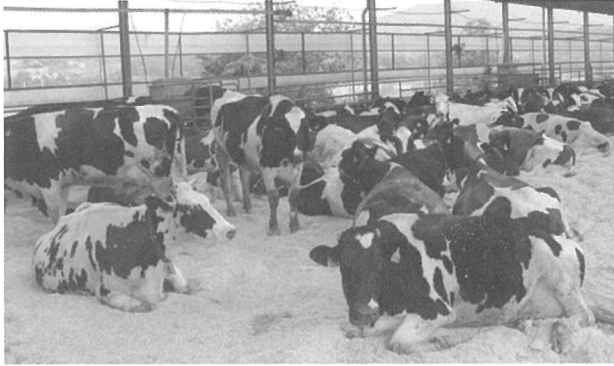
준을 여전히 높게 급여한다면 과영양이 되거나 반추위 통과속도가 높아져 영양소의 손실은 물론이고 신진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료급여량이 적절하지 않아 사조에 사료가 비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료를 급여할 때 젖소가 폭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반추위 산성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사조에 사료가 있도록 사료를 2회 이상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사료나 농후사료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대사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절기를 대비해 우사나 송아지방, 분만실 등을 점검해 수리하고, 그늘막, 스프링클러, 송풍기 등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한다.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착유기 부품을 점검해 보고 원유 여과망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번식관리

비유단계별로 적합한 BCS 유지토록 노력해야

여름철에 분만한 젖소의 경우 고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저하되었던 번식능력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고영양분·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해서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다



록 하고, 섬유소 함량은 15~17%가 유지되도록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건물섭취량을 최대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

분만우 뿐 아니라 대부분 젖소들의 영양 상태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총실지수(BCS)는 소의 영양상태를 현장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번식 성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들어 분만 후 신체총실지수가 1점 이상 감소한 소는 1점 이하 감소한 소에 비해서 첫 발정까지의 일수가 증가하고 종부시 수태율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총실지수가 0.5이상 감소한 소는 0.5이하 감소한 젖소에 비해서 분만 후 첫 발정이 늦고 수태율이 다소 낮아지는 등 신체총실지수와 번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 1개월마다 개체별 BCS를 측정해 영양균형을 맞춰주면 번식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농가에서는 개체정보 관리나 번식관련 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해서 개체별 분만 간격, 공태일수, 첫 수정일, 수태 당 수정횟수 및 발정발견율 등 번식상황을 자가진단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목장의 성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소의 번식상황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손쉽게 목장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방역 및 위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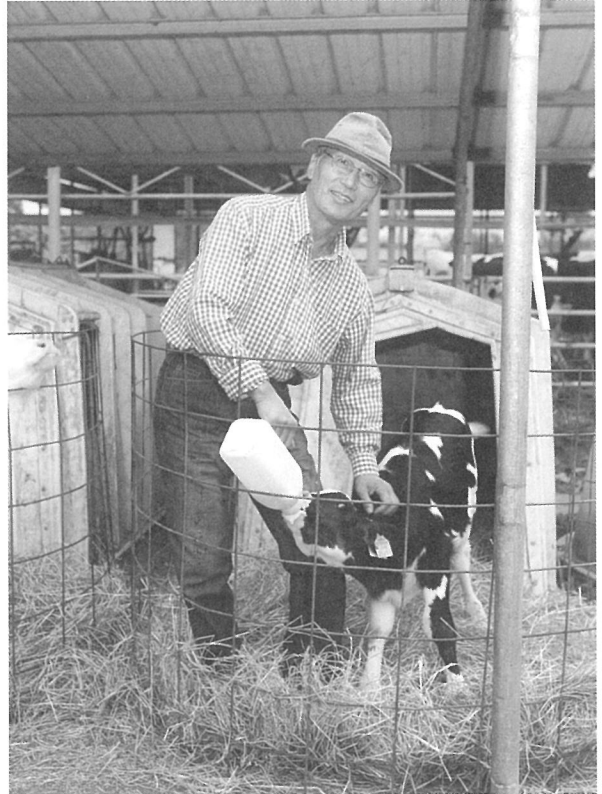
비유단계별로 적합한 BCS 유지토록 노력해야

10월이 되면서 다시금 구제역 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면서 구제역 차단방역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바뀌었는데,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농가에서의 차단방역에 관

심을 가져야하며, 백신은 항체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용량을 지켜 접종을 실시해 해야겠다.

무엇보다, 농장 출입 차량, 특히 사료운반차량과 톱밥 및 깔집운반차량, 가축수송차량, 분뇨운반차량 등은 여러 농장 등을 다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량의 운행기록과 차량의 소독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출입 전에 차량하부 수세 및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소독제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계류를 해야 하며, 농장 진입시 가능한 가축과의 접촉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대인소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또한 서늘한 바람과 함께 겨울철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독장비의 작동상태를 잘 점검해서 사전에 보완 및 수리를 해야 하며 소독약과 생석회 등도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악성가축전염병이 이제는 연중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의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청결한 위생과 소독을 통한 차단방역’은 질병 차단효과 외에도 가축복지와도 관계가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우군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유방염 및 체세포수 등의 감소와 송아지 설사병 예방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젠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겠다. ㉞